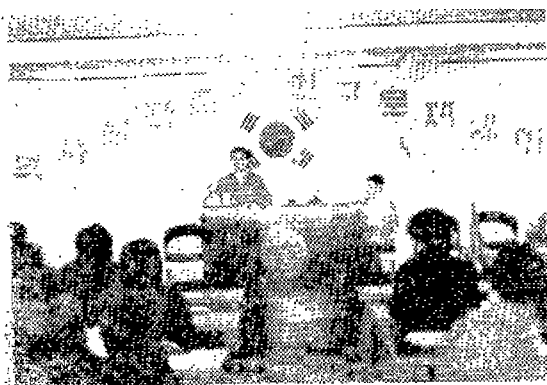


—간  
—호  
—사  
—업  
—의  
—당  
—면  
—과  
—제

윤 수 복  
(본회 총무)



금번 세미나의 주제 “지역사회 간호와 인구문제”와 72년 총회 주제 “국민보건의 향상은 지역사회 간호로”이 두 주제를 앞에 놓고 간호사업의 당면과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당면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중에 협회의 활동을 잘 모르는 분이 많이 참석한듯 하여 지금까지의 협회의 중요활동 사항부터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1923년, 조선간호부회로 재편된 간호원의 전문단체는 일제정치하에서도 전문단체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 해를 대한간호협회의 창립년도로 정하여 금년이 50주년이 되는 해로 창립 50주년 기념총회를 4월 17~20일까지 4일간 성대하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1929년, 국제간호협의회(ICN)에 대표 2명(이금전 선생, 이효경 선생 현재 생존)을 파견하였으나 독립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못하였고 다시

1936년, I.C.N. 대회에 이정애 선생(작고하심)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나 역시 일본국 대표가 된 셈이죠.

1946년, 해방과 동시 전국적인 중앙회로 재편하고 각도에 지부를 설치

1949년, 정부수립에 따라 수십년 동안 소원했던 I.C.N 정회원국으로 가입

1953년, 기관지 “대한간호” 발간

1958년, 간호학생회를 조직하였고

1962년, 군간호장교단(육군, 해군)에 군진지부 창설

1965년, 서울특별시 8개시립병원 간호과장 T.O 확보

1965년, 문교부에 간호교육 심의회를 조직한 미재단의 후원과 W.H.O의 협조를 받아 문교부 과학교육국내에 간호교육을 위해 지원하였으며 간호학교 시설기준을 마련하였고

1967년, W.H.O의 협조로 양호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이 보건연구원내에 수립되어 4개월 Course로 3회에 걸쳐 수명이 수료하여 학교보건에 이바지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4개월씩 차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계획이 중단됨.

1968년, 간호직수당을 책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법을 개정하기까지 활동하였고

1969년, 김영자 간호원 주사사건이 발생되었을 때 일심단결하여 무죄판결을 받기까지의 활동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1970년, 회원 전원의 성의로 회관이 완공되었고 본회산하에 학회조직 해외지역별 간호원회를 조직하였고

1972년, 보건간호원회를 본회 산하단체로 하는 정관개정이 보사부로부터 인준받았고 5월 12일 국제간호원의 날에 한국간호원의 윤리강령을 선포하여 우리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한 것은 새마을 정신, 10월유신 과업을 미리 수범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금년에는 또 문교부가 간호교육기관 정비방안을 수립, 10여년간 문제 삼아 오던 간호고등기술 학교가 정비된 사실은 다 같이 기뻐할 일이며 이 또한 계속 전의혜은 본회 활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간호협회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간호교육수준향상, 간호사업 발전, 간호원의 권익옹호 등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 × ×

세미나를 시작하는 첫날 주제강연을 통해 현대에 있어서의 간호의 개념을 재인식하였고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간호에 대해서 또 이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호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간호의 윤리관도 다시한번 들었습니다.

“간호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항상 머릿속에 간직해 놓고 이 인간을 위해 봉사를 하되 무한대

의 봉사 자발적인 무한대의 봉사를 해야 한다는 윤리관...시간, 물질, 노력, 명예등을 초월한 자발적인 무한대의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 간호의 윤리관이라는...이 얼마나 숭고한 윤리관인가? 世上에서는 목사직을 성직이라고 하며 사회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직업인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간호직은 목사직보다 더 숭고한 직업이라고 자부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간호직은 인간의 육체적인 고통까지 덜어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그러면 이렇듯 무한대의 봉사를 해야하는 간호직에 종사하는 우리들은 과연 만큼스럽게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간호를 하고 있는지 만일 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못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들은 우리들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어 이것을 병자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 32조 단서가 생겼고 이 단서, 즉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호원을 간호보조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간호원은 적어도 고등교육을 받은 후 간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주장 겨우 그 뜻이 이루어진 이때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9개월 훈련 받은 간호보조원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법이 제정됨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면허제도의 진의를 무시한 국민보건에 크게 위해를 주는 법이라 단정하고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활동하였으나 아직 철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모자보건법이 곧 통과되면 모자보건원이 당장 2만명이 필요하다고 당국에선 시두르고 있으며 이것도 부족하니 간호보조원에게 몇개월 훈련시켜 분만하는 일을 도움도록 하기 위해 시팅증이타기에 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으나 협회가 반대하는 참뜻을 과연 당국에서 이해하고 반영이 되겠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정말 간호원이 이렇

뜻 부족하지? 간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간호교육기관이 많이 신설되었고 기존간호학교에 정원 증원등으로 72년도에 약 2,500명의 새졸업생이 나서 졸업초기에는 20% 내외 7, 8월에 겨우 약 70% 정도밖에 취업이 안되었고 금년도에도 1월 19일에 약 2,900명이 간호원국가시험에 응시하였는데 취업이 어려울 것은 뻔한 사실이라 학교당국은 크게 열려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간호원이 부족하다고 법까지 개정하는데 날로 취업율은 저조해 가니 이런 부조리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72년 여름, 당국으로부터 의사들이 가지 않는 보건지소에 지소장 임무를 겸할 간호원을 17명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격자를 물색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나 함흥차사로 소식이 없이 지나갔고, 만성병 관리사업을 위해 경기도 지역에 근무할 간호원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정신부장까지 철저히 시켜서 보냈는데 한 사람도 채용이 안되고 그 사업은 호지부지하고 만듯하니 전신희효과를 노리는 사업계획 뿐인지 간호원이 일할 직제는 마련해 놓지 않고 구호처럼 간호원 부족하다고 떠들어대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타결해 나갈 것인지 또한 문제중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당국의 책임도 있겠으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무의촌이나 여건이 나쁜 곳에는 간호원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값싼 간호보조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간호의 윤리관을 그대로 구현하여 내교장 지역사회를 위해 여건이 나쁘더라도 1~2년은 봉사해야 한다는 마음 가진 "국민보건의 향상은 지역사회 간호로"를 실천하려면 내 교장 주민의 건강은 내 손으로라는 신념으로 임하고 실천할 때 타개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간호의 윤리관을 철저히 구현해서 간호교육을 받은 정규간호원이 아니면 병원, 보건소,

학교, 산업장 어디서고 그 일을 맡길 수 없다는 인정을 받도록 노력할 때 32조 단서같은 것이 제정되지 않을 것이고 전문직으로서의 대접을 하라고 크게 외치는데 힘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성해 봅시다. 병원에선 병원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보건소에선 그 지역 주민을 위해 학교에선 전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가 배운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간호를 했는지? 이렇게 했을 때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얻게 되며 기관, 주위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게되고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해외에 나가기를 원하는데 해외에 나가기 전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에 언어와 풍속, 예법 등 잘 알아가지고 가야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RN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aid 대접밖에 못 받고 최근 시카고에서는 한 병원에서 200명이나 RN자격을 못 얻어서 해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RN시험준비를 단단히 해가지고 가도록 명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월 20일에 있었던 미국 닉슨대통령 2기 취임연설중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정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를 바라기에 앞서 내가 내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실천에 옮기자." 아주 감명 깊은 구절이었습니다.

협회나 사회나 국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간호원의 입장에서 회원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항상 머리에 두고 새마을 정신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하자고 다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앞에 놓여진 당면과제들을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 확신하는 바입니다.